

정읍지역 마을곳의 지속과 변화의 전개양상

김 월 덕(전북대)

1. 머리말

세시풍속의 수많은 관습들은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전승되었다.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달과 계절의 순환 속에 농사일의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고, 농경생활의 일상을 지배하는 이러한 순환적 시간은 세시의 주기와 연동된다. 농경세시는 농사일의 시작, 농작물의 성장과 제초, 수확과 저장에 이르는 일련의 농경 과정을 배경으로 행해지며, 농경이라는 생업 환경조건과 매우 밀착되어 있다.¹⁾ 그런데 삶의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도 바뀌는 것과 같이, 근대화된 농촌에서 농경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자연히 농경세시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농기계와 농약과 화학비료 등의 보급으로 협동노동 관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고, 사회구조와 가치관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농촌의 농경환경과 농경방식이 변화하면서 농경세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민속조사와 연구도 어떤 고정적 보편성을 전제하는 방향에서 출발하기보다 실제적 변화상을 포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1) '농경세시'는 농경에 관한 의례적 세시풍속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 촌락사회의 생활주기를 형성해온 농경의례는 민간신앙행위와 세시풍속의 근간이 되었다.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1985, 7-10쪽.

그래서 역사와 지역과 시대를 교차하며 형성된 특수성과 아울러, 농경세시의 변화와 실상의 의미를 탐색해 나가야 한다. 한편, 삶의 양식이 바뀌더라도 세시의 반복성과 의례적 행위는 일정한 지속력을 갖는다.²⁾ 농경세시는 전통적 관습과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단절되기도 하지만, 과거와의 연속성을 가지며 지속되면서도 고정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모한다.³⁾ 문화는 이러한 지속과 변모의 과정에서 현실에 적응하며 새로운 전개를 보인다. 변모 또는 재창조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속성을 상실한다. 본 고에서는 읍읍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경세기 가운데서 현재까지 비교적 전승력이 유지되고 있는 마을곳의 지속과 변화의 문화적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의 전통이 현대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양식뿐만 아니라 문화양식에서도 ‘복고적 이상주의’ 선호 경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⁴⁾ 우리의 민속문화도 무엇인가 더욱 더 오래된 것은 더 ‘원형’에 가깝고, 원형은 가치 있고 중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모든 민속문화에 대한 이상적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예컨대, 어떤 무형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 할 때, 그 무형문화 자체가 얼마나 원형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가 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데서도 그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민속문화, 특히 인간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양식은 엄밀히 말해 ‘원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늘 지속과 변화의 변증법적 좌표 어딘가에 놓여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농경세

-
- 2) 예컨대, 설날과 추석은 그 명절에 대한 인식이나 명절을 즐기는 방식이 바뀌었고, 전통 농경사회에서 가졌던 의미와 같지 않더라도,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세시명절이다.
 - 3) 농촌에서 새로운 민속의 발굴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성찰과 함께 최근 민속학계에서는 무형문화의 ‘원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 ‘원형’, ‘복원’ 등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민속문화의 원형과 변이의 문제에 대해 임재해는 ‘민속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고 생동하는 문화적 실체’라는 점과 ‘추론된 원형도 일정한 상황 속에서 변화를 겪은 하나의 변이형일 뿐’이라고 하며, 민속문화도 일반적인 문화와 마찬가지로 지속되어 온 변화의 산물임을 명시하고 있다. 임재해, 『마을민속,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마을민속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5, 40-41쪽.
 - 4) 하우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자. “인간은 자신들의 삶과 문화를 생각할 때 더 나은 것이 반드시 더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느낌을 오늘날까지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예술사가와 고고학자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예술 양식이 곧 근원적 양식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역사의 왜곡도 서슴지 않는 실정이다.” 아르놀트 하우저, 백낙청 옮김, 『문화과 예술의 사회사 1 : 선사시대부터 중세까지』(개정판), 창작과비평사, 2007, 13쪽.

시, 나아가 민속문화를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지평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성을 지향할 때 우리문화의 지속과 변동의 논리와 이론을 개방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정읍지역 마을굿의 전승 현황

세시행사의 규모와 범위는 개인단위(가정단위), 자연마을단위, 행정마을단위, 면단위, 여러 개의 면단위, 군·도단위, 전국단위 등 층위가 다양하다.⁵⁾ 농촌에서도 많은 세시풍속이 현장에서 사라졌거나 사라져가고 있지만, 자연마을 단위의 마을굿은 다른 규모 단위의 세시행사에 비해 전승력을 유지하고 있다. 자연마을단위의 농경세시로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공동체의 통합과 소속감을 다지는 마을굿과 마을단위의 공동유희 등이 과거보다 약화되었거나 변화된 형태로나마 현장에서 전승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근대화된 농촌이라 할지라도 마을단위의 협동이 필요하며, 도시에 비하면 공동체적 유대 없이 삶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읍지역 농경세시로 마을굿의 전승현황을 현행되는 사례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면	리	마을	명칭	날짜	특징
영원면	장재리	백양마을	당산제	2. 1.	
	장재리	청량마을	샘제	2. 1.	여자 불참
	앵성리	미전마을	샘제-당산제	2. 1.	
	운학리	태동마을	당산제	2. 1.	
	은선리	갈선마을	당산제	1. 14.	당산에 줄감기

5) 세시풍속 현지조사의 실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김명자, 「마을사회에서 세시풍속의 조사와 연구」, 『마을 민속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2, 104-107쪽. 이 글에서는 세시풍속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행사의 명칭, 시기와 기간, 기준력, 행사의 단위 또는 범위, 장소, 조직, 주체, 규모, 외부인의 참여, 비용, 도구나 시설 및 관리 등을 열거하였다.

6) 정읍지역 마을굿 사례들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송화섭, 「정읍 월백암 당제에 대한 고찰」, 『한국민속학』 19집, 한국민속학회, 1986. 박현국, 「정읍 지역 당산제 고찰」, 『한국민속학』 27집, 한국민속학회, 1995. 김윌덕, 「호남지역 여성주재형 마을굿의 상징성과 축제성 - 정읍시 북면 오류리 마을굿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46집, 한국민속학회, 2007.

면	리	마을	명칭	날짜	특징
소성면	신천리	춘수마을	당산제	1. 15.	줄다리기 후 여자들 제사
	애당리	원애당	거리제	2. 1.	여자들이 주도
	등계리	등계마을	당산제	2. 1.	줄다리기 단절
정우면	초강리	덕천(내머리)	당산제	2. 1.	
산내면	예덕리	하예	당산제	정월에 택일	
	종성리	원종성	당산제	2. 1.	
산외면	정량리	원정	당산제	1. 16.	줄다리기-진놀이 등
	목욕리	내목	당산제	2. 1.	짐대를 세운 후 고사
칠보면	백암리	원백암	당산제	1. 3	열두 당산굿
옹동면	매정리	원내동	당산제	1. 5 - 6.	제웅
북면	오류리	원오류	당산제	2. 1.	여성 주도. 단속굿춤
	신평	동신/서신	당산제	1. 15.	줄다리기 단절
고부면	만수리	하만	당산제	1. 15.	줄굿, 당기긴 후 입석감기, 고사
	남북리	남령	당산제	1. 14.	
감곡면	통성리	녹동	당산제	1. 15.	줄당기기 후 입석 감기
	통성리	순촌	당산제	1. 15.	줄다린 후 굿
입암면	연월리	신월	당산제	1. 15.	줄당긴 후 줄감기
정읍시	흑암동	상흑	당산제	1. 15.	줄당긴 후 줄감기, 제사
	송산동	송학	당산제	2. 1.	줄다리기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읍지역 마을굿은 겨울 농한기인 정월 보름과 2월 초하루에 집중되어 있다. 날짜로 볼 때, 2월 초하루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점이 정읍지역 마을굿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사내기날’, ‘노래기날’, ‘하리하드렛날’, ‘영등할머니 내려오는 날’ 등으로 일컬어지며 해충 예방을 기원하며 콩을 볶아먹는 2월 초하루는, 농한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정읍지역 마을굿의 시기로 정월 보름이 풍년을 기원하며 한 해의 시작으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시간이라면, 2월 초하루는 머슴과 일꾼들이 실제로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하는 실제적 의미를 가진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농촌의 생활 주기는 농번기와 농한기로 대별되며, 다시 파종에서 수확까지와 수확에서 파종까지로 양분할 수 있다. 농번기와 농한기 사이의 기간도 생

업의 망한(忙閑)의 차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농경세시는 농한기와 각 계절이 단락 지어지는 시기에 집중된다.⁷⁾ 농한기의 대표적인 농경세시로 정월의 마을굿과 칠월 칠석이나 백중 무렵의 호미씻이를 들 수 있으며, 칠석과 백중 때 행해지는 놀이굿도 넓은 의미에서 마을굿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위의 표에 제시된 마을들 가운데 많은 마을들에서는 여름철 농번기가 끝나고 백중 무렵에 마을 사람들이 회관이나 모정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쉬는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다. 두레노동이 성행한 시기에 칠월 칠석이나 백중은 김매기 노동이 끝난 후 하루 동안 노동의 긴장을 풀며 농민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기는 여름 축제였다. 현재 두레노동방식은 소멸했지만, 칠월 칠석과 백중의 여름 세시풍속의 명맥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온 농경세시 외에도, 정읍지역의 새로운 농촌세시⁸⁾로 흔히 ‘○○의 날’로 일컬어지는 사회적 성격의 기념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기념일은 마을단위와 지역(면)단위에서 구분된다. ‘마을의 날’과 같은 마을단위 기념일은 마을굿 전통과 무관하지 않으며, 변화된 농촌의 삶에 마을굿 전통이 문화적으로 적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⁹⁾ ‘면민의 날’과 같은 농촌지역 단위의 기념일은 지역주민의 단합을 목적으로 관에서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해방 이후 시작된 체육대회에서부터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작된 지역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전통적인 농경세시가 여전히 음력에 따르고 있지만, 농촌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행사인 ‘마을의 날’이나 ‘면민의 날’ 등은 대개 양력을 따르고 있다. 농촌의 생활주기에서 주말과 휴일의 의미가 커지고, 농사력과 생활방식에서 양력의 의존도가 예전에 비해 높아지

7) 김택규, 앞의 책, 363-4쪽.

8) ‘농경세시가 농사력에 따라 행해지는 세시풍속과 관련된다면, ‘농촌세시’는 농사력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농경세시만큼 농사력과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행해지듯 농경과의 밀착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는 의미에서 용어를 구분하여 썼다.

9) 최근 ‘근대에 만들어진 전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흡스봄의 ‘만들어진 전통’ 개념이 남용되고 있다.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이 개념이 하나의 독창적인 시각을 던져준 것은 분명하지만, 이 개념의 남용 때문에 때로 ‘전통의 창조’와 ‘전통의 적응’이 혼용되어 쓰이는 오류를 낳기도 한다. 흡스봄은 ‘전통의 창출’과 ‘전통의 적응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낡은 방식이 살아 있는 곳에서 전통의 부활이나 발명은 필요 없다. 진정한 전통들이 보여준 내구성과 적응력을 ‘전통의 발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에릭 흡스봄 외 지음,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31쪽. 농촌을 배경으로 한 지역축제 등에서 ‘만들어진 전통’들이 양산되기도 하지만, 한편 농촌의 어떤 전통들은 내구성과 적응력을 갖춘 전통들인 것이다.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의 날’ 식의 행사가 갖는 양력세시로서의 성격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정읍지역 마을굿의 지속과 변화

3.1. 형식의 변화 : 마을신앙에서 마을축제로

마을굿에서 제의의 신성성이 약화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읍지역 마을굿에서도 마을제사에서 각종 금기나 제의적 엄격성은 약해지고, 제사에 결부된 대동놀이 부분이 확장되어 축제적 개방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영원면 장재리나 운학리 등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과 집안을 위해서 소지와 비손을 위주로 한 소박한 형식의 마을제사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외부에 널리 알려진 산외면 원정, 칠보면 백암, 북면 오류리 등에서는 본래 마을 사람들을 위해 행해지던 형식에서 이제는 일차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외부의 참여자들과 함께 하기 위한 축제형식의 마을굿으로 변화했다.

산외면 원정마을 마을굿은 도작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줄을 매개로 펼쳐지는 마을축제이다. 줄로 하는 진쌍기와 줄다리기와 같이 줄을 이용한 대동놀이가 마을 사람들과 마을 외부집단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칠보면 백암의 경우는, 열두 당산과 남근석이라는 당산의 특이성이 있고, 호남지역 마을굿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열두 당산굿을 통해 축제성이 구축된다. 북면 원오류마을의 경우 여성성의 확장을 기반으로 축제화된 사례이다.¹⁰⁾ 6.25 이전에 오류리에는 남성 위주의 당산제와 여성들의 축귀적 의례가 공존하다가, 6.25 이후에 이러한 관습이 단절되었고, 이후 마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재앙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이 주도하여 축귀의례를 다시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여성들이 주도하는 당산제로 행해지다가, 마을 여자들의 속곳춤이라는 특이한 요소 때문에 외부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다.

전통사회의 마을굿은 근본적으로 마을 주민들에 의한, 마을 주민들을 위한

10) 줄고, 「호남지역 여성주제형 마을굿의 상징성과 축제성 - 정읍시 북면 오류리 마을굿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46집, 한국민속학회, 2007.

곳이었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마을제사 무렵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일정한 금기를 지키고, 마을 입구에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던 것은 제의적 엄격성을 구축하는 장치였다. 축제화된 마을곳에서 이와 같은 제의의 형식적 요소가 약화되었지만, 마을의 평안과 풍요, 가까호호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곳의 근본적 지향성까지 변한 것은 아니다. 즉 마을의 전통이 지역문화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갖게 되고, 그 문화적 자산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곳의 형식적 요소는 변화했지만, 마을곳의 본질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곧 문화적 전승력의 바탕이다.

3.2. 행위 방식의 변화

호남의 평야지역 마을곳은 유교식 제사와 풍물곳의 결합으로 행해지는 방식이 널리 분포한다. 정읍지역 마을곳의 구체적인 행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마을의 상황에 따라 변화해 오기도 했지만, 호남의 산간이나 해안에 비해서 평야 도작지역 마을곳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정읍은 자연지리적으로 정읍천과 고부천, 동진강 등의 물줄기를 따라 발달한 벌판과 낮은 구릉지대에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정읍지역 마을곳에서는 벼농사 중심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마을곳의 행위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용신(수신)의 재현 의례로서 줄다리기, 풍물곳으로 행하는 당산곳 등은 호남의 도작중심지역 마을곳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로서, 정읍지역 마을곳도 당산제 전후의 줄다리기와 당산에 줄감기, 유교식 제사와 풍물곳 등의 방식으로 행해진다.

정읍지역 마을곳의 행위 방식으로 물론 무속적 방식도 간과할 수 없다.¹¹⁾ 영원면 장재리, 소성면 신천리, 옹동면 매정리 등에서는 세습무인 ‘당골’이 마을이나 인근에 살고 있어서 마을곳에서 무속적 기원의 방식도 결합되어

11) 박현국은 기존의 견해와 달리, 정읍지역 당산제의 행위 내용의 실상이 유교식 제사와 농악의 결합이 아니라, 유교식 제사와 무속 제의의 결합에 있다면서, 그 근거로 농악은 제사방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현국, 앞의 글, 195-6쪽. 그러나 호남지역의 수많은 마을곳에서 풍물곳이 충분히 제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산에서 풍물로 하는 당산곳이야말로 호남지역 마을곳의 특징을 함축하고 있다.

있었다고 한다.¹²⁾ 그런데, 호남지역 마을굿에서는 ‘당골’ 무당이 마을굿에 관여한다고 해서 무속적 방식으로 전 과정을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풍물굿패와 무당이 함께 한다는 점이 오히려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굿의 변화과정에서 당골이 점차 사라지면서 풍물굿으로만 마을굿을 하게 된 사례를 정읍지역뿐만 아니라 호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¹³⁾

주요 생업이 농사인 농촌마을에서 겨울 농한기인 정월 무렵에는 다음 한해 동안 농사가 잘되도록 기원하는 축원과 점세(占歲)가 다양하게 행해졌다.¹⁴⁾ 영원면 태동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정읍지역 마을굿의 행위 방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영원면 태동마을에서는 음력 2월 초하루 당산제 때 줄다리기를 한 후, 당산에 줄을 감아두는 방식으로 당산제를 지내다가, 줄다리기를 하지 않게 되면서 당골(무당)을 불러 축원굿을 했다고 한다. 다시 당골을 부르지 않은 최근 몇 년간은 마을 여성들이 주도하여 비손과 소지를 하고, 남자들로 이루어진 풍물굿패가 여기에 동참하여 악기반주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왔다.¹⁵⁾ 이처럼 구체적인 기원(祈願)의 행위 방식은 계속 변화해왔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마을굿이라는 양식의 제의적 지향성은 지속되어 왔다. 줄다리기에서는 여성편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마을의 풍년을 예측하고, 당골을 불러서 무속적 방식으로 할 때는 무속적 주술과 축원을 통해서, 그리고 당골이 없이 마을 사람들이 주동이 된 현재는 여성들의 비손과 소지, 그리고 남성들의 당산굿을 통해서 마을굿의 지향성에 도달하고자 한다.

3.3. 시간의 변화 : 밤에서 낮으로

마을굿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시간의 변화이다. 주로 제의의 시간은 밤으로, 근원적 시간 또는 성스러운 시간의 상징성을 갖는다. 그

12) 박현국, 앞의 글, 196쪽.

13) 부안 위도 대리, 진리, 석도리 등의 마을 당제에서는 무당굿과 풍물굿이 결합된 방식으로 마을굿을 해왔지만, 최근에 무당을 불러오기 어려워지자 마을 풍물패 중심의 마을굿을 행하고 있다.

14) 김택규, 앞의 책, 101쪽.

15) 2008년 3월 8일(음 2.1.) 현지참관 및 2008년 5월 25일 김상철(남, 77세) 상쇠 조사.

러나 최근의 시간 변화에서는 시간의 제의적 상징성 대신 현실성을 추구하여 해가 질 무렵이나 낮 시간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칠보면 원백암 당산제에 대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마을공동답으로 마을당산제와 백중날, 마을 체육대회 경비를 썼다고 되어 있고, 정월 초사흘날 밤 자정에 당산제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 2000년대 초반까지도 원백암에서는 굿패가 자정에 마을의 12방위에 흩어져 있는 열두 당산을 돌며 당산굿을 쳤으나, 근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질 녘에 당산제를 한다.

북면 오류리에서는 음력 2월 초하루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여성들이 주도하는 마을굿을 한다. 오류리 마을굿은 6·25 이전에는 남성의 접근이 철저히 금지된 채 어두운 밤에 여성들만 참여했던 굿 형태였으나, 80년대에 들어서 다시 굿을 시작한 이후 최근 5-6년 사이에 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축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마을 여성들이 주도하고 일부 남성들이 협조하여 낮 시간에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간의 변화는 제의적 시간으로서 밤의 상징성을 포기하고, 그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적 목적을 선택한 결과이다. 제의적 진지함으로부터 놀이와 축제의 지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영월면 백양마을 당산제의 경우, 밤부터 새벽까지의 시간을 고수함으로써 제의적 진지성이 유지된다. 시간의 변화에 비해 공간의 변화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마을이라는 영역 내에서 마을굿 본래의 의미와 상징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의 변화만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3.4. 전승주체의 변화 : 남성중심에서 남녀공동으로

마을굿에서 제관으로서 사제권은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여성 중심의 마을굿도 있으나 보편적이지는 않다. 여성들은 마을굿에서 전문 사제자인 무당을 제외하고는 준비자나 보조자로서 그 역할이 제한된다. 정읍지역에서는, 당산제의 전승주체가 남성 제관을 비롯해 남성 중심이었으

16) 이종철, 김삼기, 「정읍 원백암 당산제 고찰 - 장성·남근 당산 소고 -」, 『古文化』33, 한국대학 박물관협회, 1988, 35-51쪽.

나, 최근에 와서 남녀가 함께 하거나 여성들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어 왔다. 또한 여성들만의 축귀의례가 마을 공동체굿을 대표하는 특성도 보인다.

칠보면 원백암 당산제는 남성들로 구성된 굿패가 정월 초사흘날 밤에 열두 당산에서 당산굿을 친 후, 마을 당산나무에서 제를 지내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여성들은 준비를 돕는 역할에 그쳤었지만 최근에는 굿패와 동행하며 새로운 전승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영원면 백양마을 당산제는 당골(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다가 부녀회 중심으로 행해지며, 영원면 태동마을에서도 여성들이 주도하여 당산제가 이루어진다. 여성들이 주도하는 동안 남성들은 풍물굿을 쳐주며 동참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개방하게 된 데에는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감소라는 문제도 작용하고 있으며, 마을신앙에서 마을축제로 마을굿의 형식 변화도 연관되어 있다.

3.5. 세시의 변화 : 음력세시의 명맥 유지와 양력세시의 출현

농경세시는 기본적으로 1년을 주기로 하는 농사력에 따르며, 농경세시로서 마을굿은 여전히 음력세시로 지속되고 있다. 앞서 정읍지역 마을굿의 전승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읍지역 마을굿의 날짜는 음력 정월 보름날과 음력 2월 초하루에 밀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2월 초하루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아울러 여름세시로서 백중은 농촌에서 여름 농한기로 마을에서 큰 굿판을 벌이는 시기였지만, 현재는 그러한 전통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간간 5월, 미끈 6월, 어정 7월, 동동 8월”이라는 속담에서 보듯이, 별일이 없이 어정거리다 지나가버린다는 음력 7월은 고된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여름철 농한기였다. ‘백중’은 불교적인 유래에 따르면 조상을 기리는 날로서 오랜 전통이 있는 세시일인데,¹⁷⁾ 농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김매기를 끝내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며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호미씻이를 하는 때이다. 마을에 따라, 혹은 한 마을에서도 그 해의 사정에 따라 칠석

17) 성현의 『용재총화』에는 백중을 “속칭 백중(百種)이라 하여 절에서 백 가지 꽃 열매를 모아 우란분(盂蘭盆)을 베풀었는데, 서울에 있는 여승의 암자에서 더욱 심하였으므로 부녀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곡식을 바치고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 제사지냈다”라고 기록하였다. 성현, 민족문화추진회 편, 『慵齋叢話』, 서울, 1997, 42쪽.

이나 백중 중에서 하루를 택하여 일꾼들이 이웃과 하루를 쉬면서 그동안에 쌓인 피로를 풀었다. 물론 두레 지심매기와 같은 협동노동 관습이 성했을 때 육체노동에서 쌓인 긴장을 푸는 이완의 시간으로서 이러한 휴식일이 갖는 의미는 지금보다 훨씬 컸다.

정읍지역의 많은 마을들에서는 두레 풍속이 사라진 지금까지도 백중을 공동오락과 단합의 날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칠보면 원백암에서는 백중을 ‘주민의 날’이라고 하고 마을잔치를 벌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단합하는 기회로 삼는다. 아울러 이 날은 마을 어른을 모시고 대접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¹⁸⁾ 정읍시 흑암동 상후¹⁹⁾, 영원면 운학리 태동,²⁰⁾ 북면 오류리 원오류, 산외면 정랑리 원정 등지에서도 백중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같이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농경 방식과 환경은 변했지만, ‘농사 일을 쉬며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하루 노는 날’ 백중이 농경세시로서 갖는 의미는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농경세시는 음력세시를 기본으로 하지만, 최근 농촌의 생활 리듬에서 주말과 휴일이 일상화되면서 양력세시의 의미도 커지고 있다.

마을의 특수한 생활사 및 사회사적 배경에서 형성된 특정일이 주기성을 띠며 반복되면 이것도 세시명절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²¹⁾ 물론 어떤 행위가 일정한 세시로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며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얼마간 반복된 행사를 세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변화된 농촌에서 변화된 삶의 방식에 대한 적응으로서 새로운 풍속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특정일에 지속되는 마을단위의 행사일이나 기념일도 양력세시라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 된다.

18) 칠보면 백암리 원백암 이장 정영주 씨 면담. 지난 3-4년간은 양력 8월에 해바라기축제로 대체하였다고 한다.

19) 1981년 정읍시 승격 이전에 소성면 흑암리.

20) 태동에서는 유월 유두, 칠월 칠석과 백중 때 마을잔치를 벌이는데, 칠석과 백중이 날이 가까워 칠석을 생략한다고 한다.

21) 세시풍속의 형성 배경은 계절과 생업에 따른 자연 및 생활적 측면과, 역사·종교·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환, 「세시풍속의 개념과 역사적 변화」, 『한국의 세시풍속』 (I), 국립민속박물관, 1997, 13쪽.

예컨대, 약 15년 전부터 영원면 태동마을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태동마을의 날’로 정하고, 마을의 남녀노소가 마을을 벗어나 인근의 황토현(전적지)에 가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놀이를 즐기며 하루를 보낸다. 영원면 태동마을의 날은 출향민까지 다 모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놀이를 하며 명절처럼 즐기는 날이다. ‘태동마을의 날’은 양력이지만, 고정적인 날짜로 구속력과 주기성을 갖고 반복되면서 단순한 야유회 이상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시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5월 5일을 마을의 날로 삼게 된 계기는 휴일을 이용해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즐기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실제로 이 무렵은 야외활동을 하기에 좋은 철인데다가 음력 3,4월로 시기상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농촌마을에서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태동마을에서는 마을의 날에 어린이들을 위한 시상식을 갖고, 마을사람들이 함께 윷놀이와 공놀이 등을 하며 하루를 즐긴다. 또 이때는 출향민뿐만 아니라 면장이나 시장 등의 방문도 이어진다. 이처럼 농촌에서 양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유용하므로,²²⁾ 양력세시의 의미와 기능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6. 기념일의 창조

정읍지역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에 면민의 날을 겸하여 면민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열어 왔다. 최근에는 각 면에서 날짜를 달리 선택하여 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²³⁾ 사회적인 기념일로서 면단위로 행해지는 ‘면민의 날’은 지역민 단합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지역민들의 협조로 개최되는 행사이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당 면 사람들은 이 날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면민들과 출향민들이 어울려 명절 못지않은 성황을 이룬다. 셋째, 이미 농촌 마을 내에서도 하지 않는

22) 최근 시제와 같은 문중제사를 음력에서 공휴일이나 일요일로 바꾸어 집안 식구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23) 감곡면(9월 3일), 고부면(4월 1일), 산외면(9월 15일), 영원면(8월 15일), 칠보면 (10월 3일) 등등.

각종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면민의 날 프로그램은 대체로 각종 시상식, 체육대회, 노래자랑, 민속놀이 등으로 어느 면이나 대동소이하다. 면민의 날에는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의 종합세트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민속놀이들이 행해진다. 한편 면민의 날은 역사가 짧고, 관의 의해 주도되며, 마을의 영역을 벗어나서 행해진다는 점²⁴⁾에서 한계가 있다. 또 양력을 기준으로 생성된 세시풍속을 전통 세시풍속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된 바도 없다. 그러나 면민의 날은 농촌지역민들에게 자신의 고향에서 행해지는 축제일이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풍토와 어우러져 새로운 세시풍속으로 정착되어 온 것처럼, 농촌에서 ‘마을의 날’이나 지역사회의 기념일이 지역세시로 정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4. 맺음말

정읍지역에서 마을공동체 단위로 행해지는 농경세시인 마을굿을 중심으로 세시의 지속과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마을굿의 큰 틀인 형식, 구체적인 행위의 방식, 시간과 공간, 전승 주체, 절기 등의 측면에서 마을굿이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속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적응하며 전승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시대적인 인식의 변화, 마을의 생활사적인 원인 등 다양한 원인이 두루 작용하고 있다.

농촌의 삶의 방식과 생활 리듬이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변화에 따른 농촌 민속문화의 실상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읍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고찰해본 바, 마을굿과 같은 농경세시는 주기적 반복성에 근거한 전승의 지속력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적응력도 보여주고 있다. 본 고에서는 농촌세시가 현대적 삶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지향성을 양력세시와 농촌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창조된 기념일에서 찾고자 하였다.

24) 장소는 주로 면소재지의 초등학교 운동장이다.

〈참고문헌〉

[자료]

- 고부향토지편찬위원회 편, 『고부향토지』, 정읍문화원, 2002.
-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세시풍속』Ⅱ, 1998.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 봄, 여름, 가을), 2004, 2005, 2006.
-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역사문화전 6·정읍』, 통천문화사, 2006.
- 김익두 외, 『정읍지역 민속예능』, 전북대박물관, 2002.
- 비교민속학회 편, 『아시아 세시풍속의 비교연구』, 200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8.5. 23-4.
- 이중철, 김삼기, 「정읍 원백암 당산제 고찰 - 장성·남근 당산 소고 -」, 『古文化』3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8, 35-51쪽.
- 전라북도, 『전라북도 마을지킴이·정악』, 2004.
- 전라북도, 국립민속박물관, 『전라북도 장승·숫대신앙』, 1994.
- 정읍군, 『정읍군사』, 정읍군 문화공보실, 1985.
- 정읍시 영원면·영원면지추진위원회 편, 『영원 : 영원사람들의 삶과 역사』, 2005.
- 정읍시 소성면·소성면지편찬위원회 편, 『소성 : 소성사람들의 삶과 발자취』, 2007.
- 정읍시·전북대 인문학연구소, 『샘고을 역사문화길잡이』, 2006.
- 정읍시사편찬위원회 편, 『정읍시사』상·하, 정읍시, 2002(상), 2003(하).
- 조선의민속전통편찬위원회 편, 『민속놀이와 명절』, 대산출판사, 2000.

[논저]

- 김명자, 「마을사회에서 세시풍속의 조사와 연구」,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마을민속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2.
- _____, 「도시생활과 세시풍속」, 『한국민속학』41집, 한국민속학회, 2005.
- 김월덕, 「호남지역 여성주재형 마을곳의 상징성과 축제성 - 정읍시 북면 오류리 마을곳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제46집, 한국민속학회, 2007.
-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 박진태, 『전북지역문화의 재인식』, 대구대학교출판부, 2006.
- 박현국, 「정읍 지역 당산제 고찰」, 『한국민속학』27집, 한국민속학회, 1995.
- 송화섭, 「정읍 원백암 당제에 대한 고찰」, 『한국민속학』19집, 한국민속학회, 1986.
- 임동권,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9.
- 임재해, 「민속문화의 지속과 변환양상의 재인식」, 『실천민속학연구』제3호, 실천민속학회, 2001.
- 임재해,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제45집, 한국민속학회, 2007.
- 정승모, 「세시풍속 연구의 새로운 관점과 조사방법」, 『한국의 세시풍속』, 학고재, 2001.
-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Abstracts】

An aspect of the continuity and the change : Maeul-kut of Jeongup

Kim, Wol-duk

This paper focuses on an aspect of the continuity and the change of Maeul-kut that have performed in Jeongup. In this paper, Maeul-kut is treated as agricultural custom. The season of Maeul-kut in Jeongup is the 15th of January and the first of February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Baekjung custom on the 15th of July has been continuing in Jeongup.

The continuity and the change of Maeul-kut of Jeongup may be considered as follows : forms of Maeul-kut, behaviors that consist of Maeul-kut, time and place, performers, the subdivisions of the seasons and so on. The cause of the change are related to the change of villagers' recognition to tradition and rural life. And new custom according to the solar calendar such as 'invented commemoration day' supported by township is worthy of notice. All the changes are the result that the old culture adapted to the realities.

Key Words : Jeongup, Maeul-kut, agricultural custom, continuity, change, lunar calendar, solar calendar, commemoration day, cultural adaption.

이 논문은 2008년 5월 26일에 투고되었으며, 2008년 7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